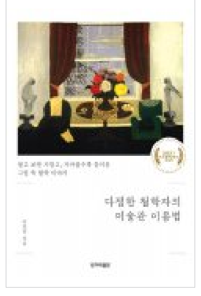
# 미켈란젤로에서 니체를, 샤갈에서 제자백가를 읽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 — 이진민 지음



불현 듯 드는 생각. 철학과 미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유하게 한다는 것일 터다. 철학은 인생관,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유가 밑바탕이다. 반면 시각예술인 미술은 느낌을 중시한다. 그러나 작품을 볼 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작가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이며, 제목은 왜 그렇게 붙였을까라고 궁금해한다. 그처럼 미술 또한 끊임없는 사유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철학을 닮았다.

누구나 미술 작품 앞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생각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술은 철학이라는 공간에 불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은 것이다.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의 저자 이진민 박사의 그림 속 철학 이야기를 묶은 책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은 친근하다.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저자는 철학을 일상의 말랑말랑한 언어로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다. 책을 쓰고 싶었던 터라 철학과 미술의 결합은 흥미로운 주제였다. 이번 책은 전작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와 같은 연장선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미술관이 철학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라고 강조한다. "모호하게 느껴지는 개념들을 벽돌 삼아 쌓아가는 논리의 성"이 철학인데, 벽돌 자체를 쥐기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엄두를 못낼 일이다. 그러나 철학의 이런 장벽은 소통 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허물 수 있다.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편 또한 철학이므로 생각을 유연하게 접근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림'은 사유의 힘을 기르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손'만 클로즈업해서 보면 어느 쪽이 신이고 어느 쪽이 인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얼핏 부드럽게 수용하는 손끝은 신으로, 상대를 향해 다가가는 강렬한 손끝은 인간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아담은 편안한 자세로 부드럽게 손을 뻗고 있고, 신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곧게 손을 내밀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신은 죽었다"고 역설했던 니체를 떠올린다. 니체의 사유는 사실은 "신으로 상징되는 권위와 도덕"을 전복시켰다고 보는 편이 맞다는 것이다. 단순한 무신론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온 이성과 도덕률에 대한 도전이 그와 같은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귀결됐다는 논리다.

조선시대 책거리를 그린 그림은 서양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보여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근법에선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신비"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철학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책거리 그림들의 자유분방함이 학문탐구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듯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는 다양한 사상과 시선의 집합체다.

저자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시선의 마주침을 이야기한다. 시선의 마주침을 드러내기 위해 그려 넣은 흐릿한 선을 주목한다. "눈높이와 관점도 다르지만" 그렇게 보는 눈의 방향과 위치가 다름으로 아름답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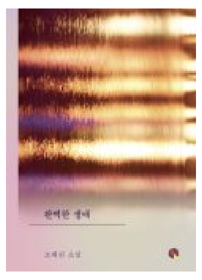
두 개의 사과그림을 예로 드는 저자의 사유는 사뭇 역동적이며 발랄하다. 호세 에스코페의 '사과나무와 크로커스', 톰 시에라크의 '빨간 모자'는 각기 사과를 배경으로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사과로 홉스의 자연 상태를 환기하지만, 후자는 평화로운 수확를 함의하는 로크의 자연 상태를 드러낸다. 같은 오브제이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듯 전혀 다른 느낌으로 수용된다.

사과 그림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호세 에스코페 작 '사과나무와 크로커스'(왼쪽)와 톰 시에라크 작 '빨간모자'

또한 저자는 클림트에게 의뢰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천장화가 포르노그래피라는 혹평을 받은 사연을 비롯해 천진한 시선이 돋보이는 파울 클레의 작품이 파시즘 광기를 뚫고 피어난 예술적 성취라는 점도 이야기한다. 〈한겨레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완벽한 생애 — 조해진 지음



윤주는 직장에서의 온갖 모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둔다. 얼마 후 일년 만에 미정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윤주는 "실직자가 돼 거리를 배회한다"고 털어놓는다. 이번 기회에 제주에 놀러 오라는 미정의 말에 윤주는 제주행을 결심한다. 미정은 자신의 꿈을 접고 지금은 제주 생활을 하고 있다.

윤주는 자신의 방을 랜털 사이트에 등록해 타인에게 대여하기로 결심한다. 그런 윤주의 방을 사이트에서 발견한 시징은 친밀한 말을 담은 메일을 보내온다. 윤주의 방이 있는 영등포는 시징의 연인이었던 은철의 고향이다. 홀연히 곁을 떠난 은철이 영등포 어딘가에서 웃고 떠들며 자신과의 추억이 담긴 홍콩에 대해 늘어놓고 있을 것만 같다.

신동엽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조해진의 신작 '완벽한 생애'는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생애를 감싸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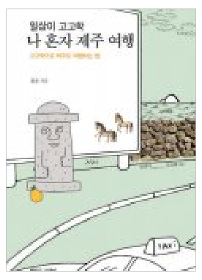
소설은 자신들의 생애에 기반을 두고 있던 견고함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직장을 그만 둔 윤주, 꿈을 접고 제주에 가 있는 미정, 윤주의 제주생활 동안 방을 빌려 한국여행을 하게 된 시징의 이야기가 편지처럼 이어진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익숙한 생활에서는 기만이나 거짓으로 모른 척했던 진심"을 비로소 마주한다.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로 인해 익숙함이 영향을 받을 때, 솔직함은 알게 모르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처럼 시선을 타인에게도 돌려, 그 자리를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다.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참사, 난개발 문제 등 소설 속 인물들은 상처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창비·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

##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제주 여행 — 황윤 지음



통계청 자료(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 한해 관광객이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록 코로나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제주도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 여행은 자연체험과 문화유산 관광에만 국한되다시피 했다. 최근에는 맛집, 여행지, 카페 등 감성 여행으로 다변화되기도 했다.

관광지도에는 없는 제주 여행을 담은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제주여행'은 고고학으로 제주도 여행을 하는 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작가이자 역사학자이며 박물관 마니아인 황윤. 대학에서는 법을 공부했지만 유물과 미술 작품에 대한 안목으로 고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관련 일을 하며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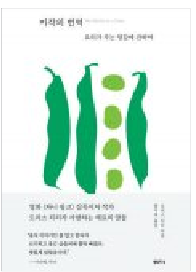
이번 책에서 작가는 고대사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제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제주에 말이 많은 까닭, 제주의 심벌 돌하르방의 기원, 탐라 및 제주도 명칭의 유래 등을 이야기한다. 특히 제주의 정체성 등을 유물 유적과 문헌 속에 존재하는 역사를 고리로 고증한다.

또한 저자는 '삼국사기', '고려사'를 비롯해 '후한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 '일본서기' 등 주변국 사서에 언급된 탐라국을 문헌적으로 개괄한다. 그 가운데 1374년 당대 최고 명장인 최영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314척 배에 2만5605명의 병력을 제주도로 파견해 '묵호의 난'을 진압한 사건에 주목한다. 묵호의 난은 원나라 정부에 의해 제주로도 파견돼 말을 키우며 살다 현지화 된 몽골인들이 저항한 사건이다.

〈책읽는 고양이·1만8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각의 번역 — 도리스 되리 지음, 함미라 옮김



'삶의 풍미를 발견하는 맛의 산책'

영화 '파니 핑크'의 감독이자 '잠자리', '푸른 드레스' 등을 쓴 도리스 되리가 첫 에세이를 펴냈다. 제목은 '미각의 번역'. 저자는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맛깔난 글솜씨로 음식에 얽힌 추억의 감각을 부드럽게 소환한다.

그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녹차와 편의점에서 산 매실장아찌 오니기리를 먹으며 "이보다 더 일본적인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해변에서 일광욕으로 뜨끈해진 채 차가운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수박물이 무릎 위에 방울져 떨어지던 기억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한다.

어린 시절 경험한 신기하고 다채로운 추억도 맛깔나게 꺼내놓는다. 방과 후 마구간에서 훔쳐 먹었던 딱딱한 빵 조각들, 방안을 휘돌던 달큰한 효모 냄새, 마음을 안정시키던 엄마의 자두 케이크,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송아지 뇌 요리, 한여름에 먹던 붉은 과즙이 가득했던 수박 등에 얽인 이야기들은 위로를 전한다.

이밖에도 파에야, 독일식 감자 부침개, 연어 크림치즈 베이글, 감바스, 브레첼 등 입안 가득 향과 식감이 함께 어우러지는 먹거리들이 장소나 사람 이야기와 연결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저자는 단순히 식도락의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몸이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라며 "'먹는 행위'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이며 날것의 생을 감각하는 일이다. 더불어 개인의 책임과 생존의 무게를 실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한다. 〈샘터·1만6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